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2018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평가 추진 현장점검 거쳐 오는 8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공동체 등급평가를 위한 현지점검 모습(사진 왼쪽은 군산 비응도, 오른쪽은 안산시수산업경영인공동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모범공동체 상위 20%(5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체 평가위원회, 지방청, 지자체(수산사무소) 공무원 등 2~3명을 1개 조로 편성, 총 9개 조의 현지 점검단은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지자체 예비평가의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올해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 선정을 위해 별도의 점검단을 구성,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지자체에서 추천한 모범공동체 7개소에 대한 현지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중 2018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등급 결정 및 2018년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자체 추천을 받아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 대상에 오른 공동체는 △충남 보령 삼시도공동체 △충남 서산 웅도공동체 △전남 보성 선소공동체 △경남 통영이동성구회어업공동체 △경남 사천시남시어선업공동체 △전북 남원시내수면공동체 △전북 익산내수면공동체 등 7개소이며,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공동체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지자체평가 등급별 공동체는 총 1,094개소이며, 이 가운데 선진공동체는 68개소, 자립 247개소, 모범 292개소, 협동 463개소, 참여 24개소로 집계됐다.

### 제3차 해외 우수사례 답사 9월 10~14일 중국에서

한국수산업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수산업 현장을 시찰하는 금년도 제3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를 실시한다. 주요 답사지역은 중국 산둥성의 위해, 연태의 수산업

현장이다. 이번 중국 답사에는 2017년 신규 참여공동체 어업인 12명을 비롯,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16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는 수산자원 관리방안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율관리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3차에 걸쳐 실시된다.

### 2018년 상반기 신규 참여 공동체 현황

#### 어선어업 4개 공동체 포함, 9개 공동체 신규 참여

금년 상반기(1~6월)에 9개 공동체가 신규 참여하여, 6월 말 현재 등록된 공동체는 총 1,103개소로 집계됐다. 금년 상반기 중 신규 참여한 9개 공동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마을어업 2개소, 어선어업 4개소, 내수면어업 3개소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 경남 5개소, 경북 2개소로 나타났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중 신규 참여한 9개소 공동체 현황이다.

△남면내수면어업계 자율관리공동

체(위원장 반상교) △서천군남시어업인협회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정호) △근해장어통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영철) △거제동부남시어선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귀철) △남해군 고사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효근) △통영갈치남시어선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성득) △통영볼곡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종봉) △경북어업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장종주) △구미내수면어업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길득)

### 경남 거제 새우조망 자율관리공동체

#### 치어방류, 해안가 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작업 실시



거제시 새우조망공동체가 대우조선 스쿠버동호회의 협조를 받아 비닷속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자원보호를 위한 치어방류사업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 거제시 새우조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서경수)는 7월 1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예구마을 해안에서 거제 대우조선스쿠버동호회 40여명과 팔랑포동호회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회복을 위한 치어 방류사업, 어장정화사업, 해안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날 추진한 방류사업의 어종은 볼

락, 쥐치, 자리돔 등 150kg 정도였으며, 어린 물고기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스쿠버동호회의 협조를 받아 바다속 어장정화사업도 실시했다.

한편 어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 6톤의 해안가 쓰레기 및 폐어구 등을 수거하여, 거제시청 어업진흥과를 통해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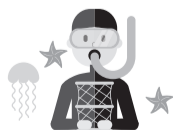
## 자율관리어업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 어장관리 활동



어장정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뒤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 자원조성 활동



채포제한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식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 시켜요.

####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 태안군 창기리공동체 75명 회원 대상 자율관리 정책방향 및 발전방안 교육



한국수산업 양문주 부장이 자율관리어업 정책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충남 태안군 창기리 자율관리공동체는 7월 19일 마을회관에서 75명의 공동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 교육을 받았다. 충남해양수산업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한국수산업 양문주 부장과 충남도연합회 양진목회장이 강사로 나서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 해남군 동현공동체, 서산시 중왕공동체 방문 자율관리어업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



중왕공동체 박현규 위원장이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남 해남군 동현 자율관리공동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7월 18일 서산시 중왕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전수 현장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중왕공동체 박현규 위원장은 공동체의 활동상 등 성공 요인 등을 소개하고,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자율관리공동체 치어방류 행사

#### 사천시 낚시어선업자자율관리공동체



사천시 낚시어선업자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정관수)는 7월 5일 사천시 동서동권역 바다목장 해역 일원에 감성돔 치어 13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감성돔 치어 방류는 사천시 낚시어선업자자율관리공동체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모범공동체로 선정돼 지원받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추진됐다.

사천시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어업인들로 구성된 사천시 낚시어선업자자율관리공동체는 연안 정화활동, 문어조업 시기조정 등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범공동체이다.

#### 통영 감성돔자망자율관리공동체



통영 감성돔자망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박석규)는 6월 30일 통영 용남면 신대교(견유마을)에서 감성돔 치어 3만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치어방류 행사에는 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장을 비롯, 30여명의 공동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 2018년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연어, 굴 양식장 및 수산시장 등 견학

금년도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 우수사례 답사가 지난 7월 9일부터 15일 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에서 진행됐다.

공동체 어업인 12명을 포함, 총 16명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단은 뉴질랜드 남섬 북동연안에 위치한 크라이스트처치의 연어 양식장, 뉴질랜드 물 대기(NIWA)연구소의 양식장 연구부서, 굴양식장 등을 둘러보고 우리 어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질랜드의 수산업은 어선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근년들어 양식어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양식 홍합과 참굴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단은 먼저 뉴질랜드 남섬 중부 메켄지 컨츄리의 트와이젤 인근에 위치한 하이컨츄리 연어 양식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양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곳은 뉴질랜드 3대 연어 양식장 중 하나로, 마운트 쿨의 차가운 빙하의 물이 녹아서 만들어진 호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어를 양식하고 있다.

연어 생산 및 가공, 요리 분야의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보유하고, 방문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 연어 제품은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노르웨이와 알래스카 연어에 밀려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한지는 최근 몇 년 사이이다. 환경관련 규정이 까다로운 뉴질랜드는 양식장의 크기와 해당 크기에 맞는 키울 수 있는 연어의 수가



뉴질랜드 3대 연어 양식장 중 하나인 하이컨츄리 연어 양식장을 방문한 연수단의 단체사진.



하이컨츄리 연어 양식장에서 먹이를 주는 연수단.

제한돼 있다.

이곳 양식장에서는 직접 종묘생산은 하지 않고,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종묘배양장에서 10~15cm 크기의 종묘를 입식, 18~24개월 가량 키워 출하하고 있다. 24개월까지 성장한 연어는 대략 4kg 정도이며, 가격은 대략 kg당 20,000원선이라고 한다. 호수의 수심은 12m, 그물은 8m이며, 저질 청소는 매년 수질 전문 다이버가 관리하고 있다. 이끼나 이물질이 그물에 많이 끼는 여름철에는 2주마다 그물 관리를 해주고 있다.

뉴질랜드는 전국적으로 연어 양식 조합이 결성돼 있으며, 이곳 양식장인



굴 양식장을 방문한 연수단이 현장에서 채취한 굴을 시식하고 있다.

근 3개 양식장도 지역 조합을 결성해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이어서 오클랜드의 물 대기(NIWA) 연구소를 방문해 양식장 연구부서 관계자로부터 뉴질랜드 수산업 현황 및 양식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곳은 뉴질랜드의 대기 및 해양환경,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굴 양식장과 수산시장을 견학했다. 연수단이 방문한 굴 양식장은 Biomarine Limited Oysters Farm에서 운영하는 Shuckleferry oysters 양식장으로, 굴 양식방법 및 뉴질랜드의



뉴질랜드에 연수중인 해수부 공무원들과 현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오클랜드의 물 대기(NIWA) 연구소를 방문해 현황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전반적인 굴 양식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배를 타고 나가 굴 양식장을 견학했다. 이곳 양식장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굴양식장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었다. 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오클랜드 피쉬마켓에는 굴, 홍합, 바닷가재, 새우를 비롯한 각종 해산물을 판매하는 선어코너와 가공처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가공식품 코너로 구분돼 있으며, 오후에는 재미있는 옥션 마켓도 열리고 있다. 각종 해산물과 훈제연어 등을 최저가부터 경매형식으로 판매하는데, 운이 좋으면 반값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킹크랩 같은 고가의 해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특별기고

# ‘어촌의 미래를 위해 자율관리어업은 지속돼야 한다’

최근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 일대에서 자율관리어업 컨설팅 활동을 펼쳤다. 이들 지역은 낙지를 주로 생산하는 곳인데, 현지 어업인들은 낙지 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어선어업 뿐 아니라 마을어장에서 너무 많이 잡아낸 탓이다.

어디 낙지뿐이겠는가? 요즘 서해안의 주 생산어종인 병어나 민어도 마찬가지로 한다. 지금 우리 바다의 자원 유지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율관리어업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말에 활동실적이 500점 미만인 공동체가 600여곳이라고 하지만 많은 공동체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난해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교육 대상이었던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후 생각이 바

뀌어 스스로 협동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하여 활동부진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아직 자율관리어업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선진공동체 견학 기회 늘려야

예전과 같은 열기는 다소 식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촌의 미래를 위하여 자율관리어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공동체를 육성 발굴해 지원 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가능하면 선진공동체에 대한 견학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양광희**  
자율관리어업 컨설턴트  
(목포·영광 담당)

또한 견학에서 얻은 견문을 실행해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서해안 일대에서 성공한 공동체를 조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역 여건을 잘 활용하여 어촌체험관광을 접목시켜 어촌을 수산물 생산은 물론 소비와 도시인의 휴양공간으로 변화시킨 사례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공한 공동체에는 헌신적인 리더가 있으며, 그들은 회의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결집한 후 투자자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작은 실천 시작하면 절반의 성공

더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회원간 신뢰가 쌓이게 되고 회원들을 단합시키는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하지만 아직도 바다를 논이나 밭처럼 가꾸고 돌보려면 마음이 들도록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여겨진다.

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면서 크게 성공한 공동체의 사례를 보여주면 부럽다고 하면서도 먼 나라의 일처럼 생각하는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이 절반의 성공이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 나가면 돌아간다. 자율관리는 쉽없이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한다. 자원이 고갈되고 어장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어촌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 먼 바다 해양쓰레기, 정부와 어업인 함께 해결한다 해수부, 7월 30일부터 수거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정부에서 처리를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7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침적쓰레기 수거는 항만구역 등 연안 위주로 이뤄졌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바다의 경우 수거 장비가 부족하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해양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은 톤당 연안지역은 약 160만원, 먼 바다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해역을 이용하는 어업인과 협업을 통해 수거는 어업인이, 처리는 정부가 지원하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시범사업에는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이 참여한다.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어선이 조업 중에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를 선박이 기항하는 부산, 여수, 제주(한림) 지역으로 운송해



해수부는 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사진은 조업모습)

오면, 해양환경공단이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여수수협과 한림수협은 여수 국동항과 제주 한림항으로 운송된 해양쓰레기 집하와 관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되며, 해수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는 해수부 1억3200만원, 수협 1억6000만원 등 총 2억9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참여 수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FTA 피해보전·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고등어, 주꾸미 등 7개 품목 선정

### 8월 말까지 시군구에 신청

올해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고등어·주꾸미·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 등 7개 품목이 선정,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에 대해 최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말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시·군·구는 9~10월 중 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 1~5월 포획 전면금지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 산란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수면)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자원회복을 위해 7월 4일 강원도가 동해시 묵호 연안 110ha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해역을 산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포획금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 기간 외에는 체중 12kg을 넘는 대문어만 잡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산란보호구역의 면적은 110ha이다.

산치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http://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 한-중, 치어방류 공동행사... 수산자원 회복에 '맞손'



2018년 한·중 공동 치어방류행사  
2018年 中·韩 联合 增殖放流活动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한중 수산당국이 7월 24일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에서 어린 물고기 방류 행사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7월 24일 전남 영광군 향화도항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한중 공동 어린 물고기 방류 행사'를 개최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서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공동 어린 물고기 방류행사를 올해부터 매년 교대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양국이 공동 방류한 어종은 참조기와 부세 각 10만 마리아다.

참조기와 부세는 한중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회유성 어종으로, 양국 국민에게 모두 인기가 높은 서해의 대표적 어종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위원장인 해수부 신현석 수산정책실장과 중국 농업농촌부 장시엔량 어업어정 관리국장(우리나라의 실장급)을 비롯,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등 어업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 명태, 무기한 포획금지... 대구, 금어기 1월로 일원화

#### 해수부, 개정안 입법예고

우리나라에서 '멸종 위기' 수준이 된 명태 포획이 당분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

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8월 14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수산종묘 100만미 방류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장 정연승)은 7월 27일 부산 기장군 칠암공판장에서 조합원, 임직원, 선사직원, 관련기관 관계자 200여명과 함

께 2018년도 '풍요로운 우리바다 만들기'란 주제로 말쥐치 등 100만미의 수산종자를 방류했다.

대형기선저수협은 매년 방류 주제를 내걸고 2015년부터 수산종자방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첫째 13만미 방류를 시작으로 2016년 53만미, 2017년에는 100만미를 방류하며 바다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2018년 2분기 새어업인상 시상식



수협중앙회는 6월 25일 10층 회의실에서 2018년 2분기 '새어업인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선정된 어촌 지도자들에게 표창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수협은 이번 '새어업인상'에 경인북부수협 김지용 어촌계장, 삼천포수협 박봉열 대의원, 멸치권한망수협 서영운 조합원, 서귀포수협 원화옥 비상임이사를 선정했다.

### 공동체 탐방 / 창원 동읍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각종 환경규제에 맞서 내수면어업을 지킨다



김산 동읍내수면공동체 위원장



수중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린고기 방류행사 모습



침적 페어구 수거 모습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종묘육성장



저수지에 방류할 종묘생산을 위한 육상사육장

“저기 수초제거선으로 연(蓮) 군락 제거하는 것 보이지요? 어민을 위한 것도, 물고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철새 서식환경 보호 때문이지요. 주남저수지의 모든 행정은 철새에 맞춰져 있어요.”

2대에 걸쳐 수십년간 주남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을 유지해 온 김산(50) 동읍내수면공동체 위원장의 말투에 철새에 대한 원망이 묻어나는 듯 했다. 실제로 창원시에는 수산과가 있지만 저수지 어로활동은 환경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 주남저수지 내수면 어업인들의 고충이 크리라고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920년대 조성된 저수지에 1960년대 어업계가 구성되면서 조직화된

어로활동은 2007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면서 또다른 전기를 맞이한다. 공동체를 결성한 것은 평온했던 저수지에 블루길, 베스, 강준치 등 외래어종이 유입되면서 토종어종이 줄어들자 체계적인 어장관리가 필요했고, 또한 철새도래지로 알려지면서 어로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르자 공동대응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먼저 수중생태계 복원을 위한 외래어종 퇴치와 페어구 수거 및 불법어업 근절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공동체 회원 수는 수십년전과 동일한 22명. 이들은 주 2회 모임을 갖고 생산량 조절, 판매가격 결정 등 공동체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조업시간 및 어

구 수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어장관리를 통해 여타 내수면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마련한 냉동창고에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냉동 보관했다가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해 오고 있는데, 연간 외래어종 수거실적은 40~50톤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동읍내수면공동체는 그동안 지원받은 육성사업비로 종묘생산동을 건립해 저수지의 어족자원을 늘리는데 재투자해 오고 있다. 종묘생산장에서는 연간 40여만 마리의 붕어 등 토종어종을 4월경 부화시켜 6개월쯤 양성후 10월 중순 저수지에 방류함으로써 유해생물로부터 종묘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주력해 오

고 있다.

“앞으로 어업인들이 생존해 나가려면 관광을 접목한 6차산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남저수지는 환경규제 심해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동체 결성 당시부터 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는 김산 위원장은 공동체에서 자체 마련해 창원시에 제출한 유향저수지 자원화 사업계획이 추진단계에서 환경단체의 철새보호 논리에 밀려 유무명실화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저수지에서의 조업기간 단축 등 어로활동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민물고기 엑기스 등 가공품 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으로 주남저수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